



Copyright  
J. Hay, 1891

조율 목조율 =100

LANGLOFFAN7.6.7.6.D.  
Welsh Hymn Melody  
from D. Anon's Hymnus A Thomas, 1865

1. 뜻 없이 무릎 꿇고 그 복종자 바르케  
2. 약한 자를 시끄럽고 강한 자 바르케

은 주 명에 자정 깨 사함 는 이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라

우 해 리 의 레 밑 음 박 치 솟 아 곳 주 독 수 기 리 날 게 듯 서 이

주 그 뜻 이 이 렷 아 지 다 서 외 치 가 사 나 나 니 아 멘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F. J. Crosby 사 P. P. Knapp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응성을 듣는 중에  
3. 주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간간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곳이고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의 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p>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으니 ○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p> <p>26 내가 살아 온 길 열어 보이매 응답하셨으니, ○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p> <p>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 주님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p> <p>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p> <p>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 당신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p> <p>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으니, ○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p> <p>31 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에 새기오니, ○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p> <p>32 당신의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 그 길을 따라 달려 가리이다.</p> <p>33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p> <p>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p> <p>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p> <p>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p> <p>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 얻게 하소서.</p>	<p>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p> <p>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p> <p>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으니, ○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p> <p>41 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 약속하신 당신의 구원을 내려주소서.</p> <p>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p> <p>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p> <p>44 당신의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 끝까지 지키리이다.</p> <p>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으니, ○ 내 던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p> <p>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p> <p>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p> <p>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묵상합니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마르코(마가)복음 15:1-11**

<p>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셨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p>	<p>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

**본기도**

능력의 하느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